

여야, 21대 국회 마지막 날에도 쟁점 법안 정면 충돌

야당, 전세사기특별법 등 의결 여당, 4개 법안 거부권 행사 건의 정부, 세월호특별법 공포 방침

여야는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에도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등 5개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의결해 정부로 넘겼다.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이날 5개 법안 중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을 제외한 4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정부는 5개 법안 중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만 수용해 공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담회를 열어 4개 법안에 대해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도, 여야 간 합의도 없는 '3무(無)' 법안 들이기에 국민의힘은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야당의 정략적 법안"이라고 비판했고,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의 경우 "법리상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곧바로 이를 재가했다. 야당이 전날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하루 남기고 쟁점법안을 강행 처리함에 따

라 정부도 이 법을 막기 위해 국회 임기 만료일에 재의요구 절차를 밟은 것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으로 하루 만에 국회로 되돌아가는 이들 4개 법안은 이날 21대 국회가 막을 내림에 따라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번이 7번째로, 거부권 행사 법안 수는 총 14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민주당은 4개 쟁점법안과 채상병특검법을 비롯한 각종 특검법 등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재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뜻에 맞서 대통령이 아무리 거부권을 남발해도 끝까지 막아내겠다"며 "억울하게 죽은 해병대원 사건의 진상, 사건 은폐 조작의 실상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22대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당론 발의해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도 조속히 입법하겠다고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이 다시 추진하는 법안에는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법, 방송 3법,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다.

전날 본회의에서 상정이 불발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가맹사업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등도 재추진 대상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한·UAE 양해각서 체결 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아랍에미리트(UAE) 협정 및 양해각서(MOU) 체결식에 배석해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과 UAE 에미리트원자력공사 사장의 제3국 원전 시장 공동진출 협력 양해각서(MOU) 서명 뒤 박수를 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국힘 추경호 "22대 국회서 연금개혁 등 최우선 처리"

"중부세 개편 논의 적극 환영"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9일 "22대 국회를 여는 즉시 여야가 이미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민생법안의 최우선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담회를 열어 "21대 국회가 끝내 극한 정쟁의 부끄러운 모습을 펼쳐내지 못하고 막을 내리는 것에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정쟁에 주요 민생법안이 무더기 폐기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민주당 때문에 각종 상임위, 본회의가 정상 진행되지 못했다"며 "그 책임은 거대 야당이 민주당이 오롯이 져야 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21대에서 무산된 연금 개혁을 두고는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의원들과 함께 깊이있게 협의하고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까지는 전향적으로 받을 용의가 있다고 한 것이 아니라"며 "기왕에 국민들에게 약속한 부분이니 거기서 후퇴하는 말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과연 그것도 개혁인가 하는

생각도 없진 않지만, 모수개혁·구조개혁을 포함해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일부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선 "중부세 개편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며 "기왕에 문제 제기했으니 장법적 과세 형태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발상에서도 제발 벗어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중부세와 함께 상속세를 거론하며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면 충분히 진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의 차등 지원도 수용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생지원금 차등 지급에 대해 "전 국민에게 주자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해왔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이 전날 강행 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한우산업 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소법 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108명 국민의힘, 22대 국회 '내부 결속' 주력

"민생정당·정책정당 거듭나겠다"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민생정당', '정책정당'을 내세우며 전열 정비에 나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도 108명의 의원이 힘을 합쳐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

민생과 정책은 여야의 단골 구호지만, 최근 국민연금 개혁과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에서 민주당에 정책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당 안팎의 비판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이 '채상병특검법'을 방어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연금개혁은 물론 각종 민생 법안의 21대 국회 처리에 소홀했다는 지적과도 맞닿는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금개혁은 바로 시작할 것"이라며 "국회 특위 구성 협상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최우선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 첫 당론 발의하는 '1호 법안'도 이같은 맥락에서 '민생입법' 콘셉트로 마련할 것

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3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의원 워크숍에서 1호 법안을 비롯한 22대 국회 주요 입법과제를 공개하고, 인공지능(AI)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특강을 들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당정협의를 강화해 정책 주도권을 쥐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추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긴밀한 당정협의를 통해 오로지 국민을 위한 민생입법 경쟁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의 직접구매 규제와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논란으로 드러난 정부의 정책조율 문제점을 당이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주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진행한 고위 당정협의회를 국회에서도 번갈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의 주도성을 강화하는 일종의 상징적 의미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야당과의 이슈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여론전에도 더욱 힘을 쏟으려는 모습이다. '소수 야당'으로서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를 막고 정책 주도권을 쥐려면 여론의 지지를 얻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1대 국회 내내 압도적 의석수를 무기로 입법폭주를 거듭했다"며 "입법부 권능을 민주당의 사유물처럼 오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21대 국회 후반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 정치적 법안, 쟁점 법안들의 일방 통과를 목표로 무리수를 두면서 (민생 입법에) 합의가 안 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가 '민생을 건어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야당의 입법독주가 원인이라고 강조하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야당에 맞설 108명의 내부 결속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당 지도부는 일부 초선 당선인들 사이에서 채상병특검법이 재발의될 경우 찬성할 수 있다는 기류가 일하는 데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날 특검법 재표결에서는 '이탈표'를 최소화하며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지만, 법안권 의석이 더 늘어나는 22대 국회에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치러지는 재표결에서 부결을 낙관하기만은 어렵다는 위기의식이 감지된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BYUN.G.U

SALE 5.22 ~ 6.8
70%~50%

변지유 창립 45주년 맞이 감사세일

이월 상품 70~50% 세일 | 신상품 30% (방블라우스 제외)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립니다. ☎ 062-222-7205 / 010-9287-7205